



생활문화

2019 생활문화취재단 활동자료집

취재단



경기도 생활문화 사업의 생생한 현장을 담다

| 경기생활문화플랫폼·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



2019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자료집



- 04 생활문화 취재단 사업 소개
- 06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소개

01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현장리뷰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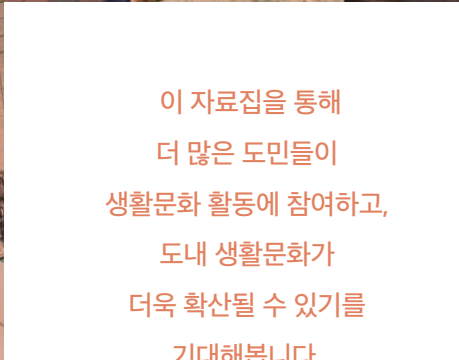
- 10 이소연 •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갯년기 파티
- 14 민병은 • 우리는 뜨개질하러 도서관 간다!
- 18 임재춘 • 내 이웃과 동네문화를 만나는 장
- 22 심한기 • 일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나눔
- 26 안태호 • 나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 30 이은혜 • 사라지는 것들에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내손의 반딧불 축제
- 34 이해구 • 1더하기 4 더하기 150
- 38 전형민 • 어? 손가락이 보인다
- 42 김성원 • 들락날락 예술가게의 지동문화살롱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사업 현장리뷰글

- 48 신지은 • 그녀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결국은 예술
- 52 최서아 • 설레는 역곡마을 문화축제
- 56 이석현 • 함께 울고, 함께 웃다!
- 60 박윤희 • 우리 동네는 문화예술 놀이터
- 64 최창임 •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 직장인 생활문화의 활력소
- 68 김채연 •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그대, 걱정 말고 도전하라!
- 72 유미희 • 가을 향기 가득한 작은 공연 광장에서 즐겨요
- 76 김윤지 • 가을 소풍을 위한 완벽한 준비, 그리고 편안한 즐거움
- 80 김예원 • 아리랑과 요들이 만나다

2019 생활문화 취재단 우수활동가 국외 생활문화 현장 탐방

- 86 탐방국가, 탐방기간, 탐방목적, 탐방인원, 세부내용
- 87 탐방일정



이 자료집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도내 생활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사업소개

생활문화 취재단은?

20~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경기도민과 문화기획 전문가 및 다사리문화기획학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생활문화 취재단은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리뷰글 작성 및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GC(경기도문화예술포털플랫폼), 경기문화재단TV, 활동가SNS 등에 취재단의 생생한 현장 리뷰와 영상을 게시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문화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를 소개·홍보함으로써 도내 생활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자료집>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가 18명이 작성한 약 40편의 리뷰 중 18편의 리뷰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도내 생활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자료집을 통해 차후 생활문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문화 취재단의 더 많은 현장리뷰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GGC(<http://ggc.ggcf.kr/>)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2019 생활문화 취재단 일정

날짜	내용
7월 29일 ~ 8월 9일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가(경기도민) 모집
8월 22일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가 최종 선정
8월 30일	워크숍 (취재단 활동 안내 및 소양교육)
8월 31일 ~ 12월 12일	생활문화 사업 현장 취재, 현장리뷰(원고,영상 등) 제작 및 게시
12월 3일 ~ 12월 7일	국외 생활문화 현장 탐방(대만)
12월 14일	생활문화 취재단 성과공유회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소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적
자원을 발견하고, 발견한 문화적 자원을 생활문화 주체로 양성하고,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총 46개의 플랫폼을 발굴했습니다.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문화플랫폼’은 단순히 생활문화 장치를 진행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 일상은 작품으로, 지역 내 모든 공간은 무대로, 그 무대에서 주민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목표이자 가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올해 선정된 32개의 플랫폼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활 속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찾아낸 생활 문화자원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전환 및 확장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와 이야기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경기도생활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펼쳐졌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생활문화축제'는 경기도만의 색을 담은 축제로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illegible]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생활문화 주체자들 간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이 문화예술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들이 연합하여 교육, 워크숍, 발표, 공연, 전시, 축제 등의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방방곡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생활문화플랫폼



01





이소연

지구별살롱 대표, 기획자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갱년기 파티

광고 카페거리를 지나 물봉선 공원에 들어서니 버스킹 밴드들의 감미로운 음악과 물소리가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는 마켓 부스들이 정갈하게 자리 잡고 손님들을 끌고, 공원 중심의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이 옷을 입은 채 물놀이에 한창이었다. 한쪽에는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인형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파는 꼬마 셀러와 엄마들이 돛자리마다 저마다의 보물들을 풀어놓고 있었다. 아기자기하고 북적북적했던 참 좋은 수다 협동조합(이하 참 좋은 수다)의 축제 마켓 여유는 <주민들의 갱년기 파티>라는 부제가 있다.





참 좋은 수다는 생활문화 예술 작가를 위한 마켓을 기반으로 광고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은 마켓, 교육 사업, 마을 공유 부엌을 운영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경력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 하는 이들에게 어떤 걸 하고 싶나 물어보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47세에서 51세까지의 활동가들에게는 갱년기가 화두였다. 누구는 지나갔고, 누구는 맞이하고 있고, 누구는 맞이할 여성으로서의 삶 말이다. 갱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며 업사이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장롱 속의 한복을 꺼내 입고 춤을 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함께 전통 무용을 배우면서 성과 공유회 파티 즈음에는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한복은 좋은 날 입었던 귀한 옷이지만 대부분 장롱 속에 버려두게 된다. 결혼할 때 예쁘게 입었던 한복을 버리자니 추억도 버려지는 것 같고 금액도 고가여서 아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복에 업사이클을 통해 생명력을 넣어주고자 했다. 신부가 입었던 배자, 회갑 잔치 때 입었던 한복, 혼주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입었던 한복 등 버리려는 한복을 받아 규방 공예로 조끼, 무릎 담요, 낮잠 이불로 변신시켰다. 한복을 가져와서 추억을 공유하며 즐겁게 변신시킨 작품들이 공원의 잔디와 나무에 전시되어 주민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삼각 향낭 주머니 여러 개를 연결하여 만든 모빌이 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리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어두컴컴한 장롱 속에서 날개를 단 한복들이 곱게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마켓 여유에서는 밴드들의 어쿠스틱 연주와 노래들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참 좋은 수다가 운영하는 마을 공유 부엌에 연주 연습을 하러 온 자녀 또래의 청년들을 만난 김민정 대표의 고민 결과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왜 대부분 서울로 갔을까, 마을에서 살 수는 없을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 마켓에서 공연 담당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덕분에 마켓 여유는 엄마들의 재능에 청년들의 재능이 버무려져 더 풍성한 마켓이 되었다.

함께 하는 이들에게 어떤 것을
하고 싶나 물어보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배워서 남 주자 클래스와 옥상 텃밭 가꾸기,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신혼부부들과 함께 하는 혼밥 데이 포틀럭 파티에는 다섯 가정에서 열 가정 정도 참여하고 있고, 옥상 텃밭에는 바질이 많이 자라서 바질 스파게티와 그릭 샐러드를 해서 먹었다. 하반기에는 마을 작가와 함께 주변의 식물을 그려보는 식물 수채화 반이 열리고 남편들을 초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갱년기에 관해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져 보려고 한다.

역동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려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며 SNS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선물들을 소개하는 김 대표와 생활 디자이너들을 보니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느낌이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자각하고 바라보며 문화적으로 수다를 나누고 있는 이들의 수다 꽃이 향연이 되어 광고에 은은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민병은

지혜로운 봄 대표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컨설턴트



우리는 뜨개질하러 도서관 간다!



“철산동은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사는 동네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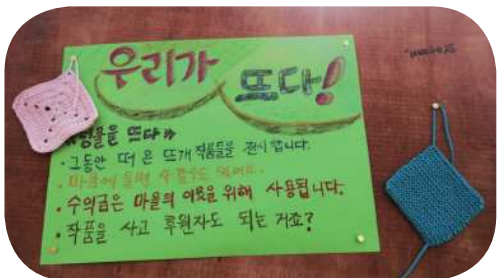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동네의 모습이 딱하니 그림처럼 떠올랐다. 농담 같은 말이지만 너무 리얼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말에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철산동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들었던 기억 때문이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형에 수로가 적소에 없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임을 곧 이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개발로 급 도시화된 상황을 장화 없이 다닐 수 있다는 표현으로 대변 되곤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단체 <분더컴머>의 생활문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넝쿨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철산하고도 4동에 있었다. 이 말은 광명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동네라는 거다. 과장해 표현하면 하늘을 보고 운전대에 매달려 운전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듯하다. 철산동 일부 지역은 개발에 이어 재개발이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지만, 철산4동은 지금까지도 개발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간 만큼 빈집은 늘어났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현수막은 이런 마을 분위기를 알려주는 친절한 설명문 같았다.

넝쿨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 경사진 마을에 뻘뻘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는 마을에서도 산 위쪽에 위치한 넝쿨 도서관은 원래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대끼는 나름의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가 없다고 드러난 사실은 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 참 곤혹스러운 현실이다.

<분더컴머>는 넝쿨 도서관과의 인연의 꼬트머리를 생활문화플랫폼으로 연결했다. <분더컴머>는 재개발로 세워진 인근 아파트에 사는 김진 작가가 운영하는 단체다. 넝쿨도서관에서의

활동은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2년 전 인근 주민들과 이야기책 만들기를 하러 온 강사 선생님이 둘러메고 온 뜨개 가방이 기획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이 그 뜨개 가방 디자인이 예뻐 일주일새 비슷하게 떠서 둘러메고 왔기 때문이다. 모두들 한번 도전해 보고픈 욕망을 김진 작가와 강사 선생님이 덜컥 받아 든 것이다. 넝쿨 도서관 관장님은 동네 주민들 홍보에 나서주셨다. 뜨개질하러 오시라고....



마을에 사시던 왕년 뜨개방 주인은 순간 전문강사가 되었다. 이름은 미(美) 선생님. 한 뜨개하시는 여든을 훌쩍 넘으신 할머니는 웬만해서 결석을 안 하시는 참석률로 몸소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감독 할머니가 되었다. 여기에 2년 쯤 되는 올해, 입소문으로 젊은 어머니들이 참여하면서 오랜 뜨개질의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해 신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젊은 어머니들은 동네학교 지역 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의 활동을 공유했다. 우리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알고 지내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초대된 것이다. 물론 넝쿨 관장님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지만, 초대된 분들은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많이 떨렸었다는 후문이다. 별것 아닌 뜨개질로 별것 아닌 활동도 해보게 되었다는 애기와 함께...

10월 5일 완전한 가을바람 불던 날, 뜨개 모임 장소는 내비게이션도 알려주지 못한 철산 배수지 삼지공원이었다. 주말 등산객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 넝쿨 도서관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주차장이 잘 되어있는, 깔끔하게 잘 가꾸어진 공원이었다. 철산4동 마을잔치라는 부제가 붙은 이 행사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공원 한가운데에서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뜨개질하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오가는 주민들이 엉덩이 붙이고 뜨개질을 같이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의미가 있진 않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켜 고구마와 과일과 떡을 먹으며, 지나가다 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채하고 엉덩이 내려놓고 함께 땀다. 미 선생님께서 배운 실력을 응용한 인형과 컵 받침, 수세미들이 공원의 지형지물 위에 전시되었고 판매도 이루어졌다. 뜨개 활동을 영상에 담던 또 한 명의 스텝은 녹색 책상을 중심에 두고 촬영을 해나갔다. 다 같이 뜨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녹색 책상에 둘러앉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책상의 움직임은 뜨개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움직인 일종의 상징 오브제였다. 도서관 밖에서도 녹색 책상이 세팅되었고 곧 뜨개질 모임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렇게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제각기 물어보면서 가르치면서 무언가를 뒀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젊은 주부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옆집 사는 아이들의 엄마를 초대해서 함께 뒀고, 함께 이야기했다. 감독 할머니는 해가 정점에서 벗어나자 춥다고 내려가셨으나 못내 궁금하셔서 옷을 더 껴입고는 올라오셨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에게 경사진 언덕을 빠지지 않고 오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 가르침에 허덕이며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배움, 살면서 터득한 나만의 소박한 주특기에 환호하는 곳,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로 시작하는 환대가 기다리는 곳이다. 나이보다 경륜이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안다는 것이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된다.



이렇게 넝쿨 도서관에서, 따뜻한 날은 마을 나무 아래서 2년째 뜨개질 한다. 40대 주부에서 80대 어르신까지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새로운 걸 발명하면서. 색만 달랐지 같은 꽃무늬의 수세미가 모양도 색도 다른 꼬꼬맥 수세미가 되고, 덧버선 뜨기 기술로 물고기 열쇠고리랑 거북이 공주 인형도 만든다. 아직 미선생님의 코바늘 가디건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소지품 가방이나 컵 받침 정도는 너끈하다. 마을 축제에 나가 판매되는 수세미 매출도 쏠쏠하다.

자기 몫을 다하는 자리에는 의무도 생기고 책임도 따르고 권리도 생긴다. 각자 자기 자리를 만드러가는 것, 함께 그 자리에서 자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이 자 원천이다. 틀리거나 맞는 것도 없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그저 풀어서 다시 하면 된다. 도전해보고자 하는 발상이 동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로 남지 않는다.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 도서관이 원래 도서관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을이 바뀌어가면 이 공간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생긴 것은 성장하고 사라진다. 공간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어린이가 없다고 공간이 쓸모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마을이 변하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이다. 모든 것이 아무개의 것으로 말해지는 지금 사회에서 누구라도 모여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공간이 마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마을살이의 따뜻함이다.



뭐라도 되려면 코를 엮고 한 코씩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은 건너뛸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늙어가는 존재로서 인간이다. 젊었던 늙었던 몸에 새겨진 각기 다른 사건들로 차이가 생겼을 뿐이다. 각자가 통과한 삶의 지형들은 수다 속에서 드러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리라.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한데 모이는 것이 이상해진 지금, 넝쿨 도서관에서의 그 이상한 모임이 지속되길 바란다.



임재춘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컨설턴트
경기문화재단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멘토
경기창생공간 '생활적정랩 배꼽' 공동운영자
커뮤니티 스튜디오104 공동운영자



내 이웃과 동네문화를 만나는 장



시작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다소 차면서 별이 좋은 가을날은 그 자체로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데 딱 그런 날이었다. 입구에는 축제 안내문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셨고 복도에는 함께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의 생각, 과정,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드로 만들어(GMO를 아시나요?/ 벼의 한 살이) 벽에 걸어 놓고, 사람들에게 잘 보일만한 곳에 테이블을 놓아 각자의 관심사들을 보기 좋게 늘어놓기도 하였다.

공간의 벽을 따라 축제를 찾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밀랍초, 한국화를 이용한 파우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자기 목걸이 등의 만들기 테이블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구경하다, 만들다, 기다리다 힘들면 가운데 깔아 놓은 자리에 앉아 쉬며 무대 벽에서 돌아가는 영상으로 ‘아 동네 사람들이 봄부터 이렇게 만나서 준비했구나.’ 하고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볼 수 있다. 광명 하안문화의집의 생활문화축제 ‘만나장’의 풍경이다.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2개 단체 중 하나인 하안문화의집은 식생활과 식문화를 주제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축제’를 열고자 했다. 두 개 그룹의 사람들을 모으고 각각의 그룹을 이끌어 가는 이들 또한 그동안 하안문화의집 활동을 통해 성장한 주민 가운데 섭외하였다. 처음에 생활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넓음, 가치의 확장성이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그 혼란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필자는 축제가 어떤 분위기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지 내심 궁금한 마음이었다.



토종팍 : 호박, 양파잼 등 토종 먹거리 판매와 토종 씨앗 전시



음식문화에 관한 두 팀의 관심은 건강함이었다. GMO나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생활 실천의 측면에서 음식을 다룬 셈이다. 음식이나 먹거리는 누구의 삶이든 떼어낼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라 생활문화, 생활문화의 기획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타당한 보편적인 문화이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에 장르가 있다면 음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두 그룹은 자신들의 이름을 ‘8공주와 맛수다(이하 8공주)’로, 또 다른 한 팀은 ‘맛보자’로 각각 지었다. 이날 축제에서 8공주팀은 하안문화의집 2층 생활문화창작실에서 <식생활 반사회>를 열고, 맛보자팀은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을 품은 국화차와 떡>이라는 제목으로 국화차와 즐기는 떡 문양 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맛보자팀의 경우 GMO와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과 공부로 시작했었는데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축제를 찾아온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시물을 만들어 두는 등 체험 프로그램의 방식에 그간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신경 쓴 흔적이 보였다.

8공주팀은 과정에서의 모습과 축제에서의 모습이 닮아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세먼지에 좋은 생활음식에서 시작하여 음식을 매개로 서로를 알아갔던, 스스로 즐거웠던 그 방식, 그대로 축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만난 것이다.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 난감했던 것들은 오히려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그간의 시간을 불충하게 하지 않는다. 축제에서는 두 번에 나눠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8공주가 손수 준비한 도토리전, 오이도라지무침, 배숙, 초주먹밥, 사과를 메뉴(미세먼지에 좋은)로 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인생에서 찬란했던 시절을 묻고 답하며 낯설게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는 제안을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서툴고 미숙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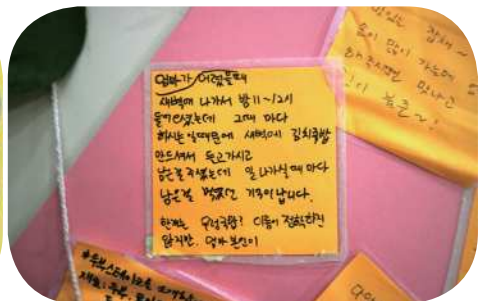
처음에는 관계를 트는, 나눔의 매개물로서 음식이 활용되곤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문화기획이 더해지면서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처럼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거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이들이 동네를 거점으로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ning)과 같은 방식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 ‘요리’라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더해지거나 ‘레시피’의 기록이나 공유와 같은 것들도 이 언저리에서 많이 이뤄진다. 방법, 주제, 장소, 재료, 사람, 개인의 서사, 기억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접근과 해석이 이처럼 가능한 것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어쩌면 그래서 음식을 생활문화를 기획하는 주제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할 때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지향과 주제의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가치만으로는 음식문화에 관한 다양함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문화라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거나 느꼈던 음식문

화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캠페인이나 정치적 선언, 공익 광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만 알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험에 나오는 정답들처럼 말이다. 두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 각자의 삶에서 공유할 수 있는 16개의 음식문화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더 선명히 드러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딜 가나 축제의 풍경은 비슷하다. ‘사람들이 모여 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움이겠지만 이 익숙함 속에는 체험 지상, 가시적 성과 중시, 소비하는 문화, 일회성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삶이 축제라면서 각자의 삶들이 만들어 내는 축제에서 삶은 사라진다. 알팍한 현재 우리 삶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양복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다니며 악수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조차도 지역 축제나 행사장 모습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이 있었다.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축제, 행사들이 취소, 연기,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만나장’도 하안문화의집 앞 너른 잔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물 2층의 실내 공유부엌(일상부엌, 30평 내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축제의 외향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 GMO와 미세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두 소비와 과잉에 대한 인간 욕망의 후면이다. 맛있으면 그만이고 싸면 그만인, 당장 편하면 그만이고 덕분에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그만인 물심의 그림자이다. 정치나 제도가 작동됨으로써 시스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지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서 변화나 실천을 이끌 방도는 무엇일까?

축제 ‘만나장’은 이 두 팀을 주축으로 하안문화의집의 동호회들과 지역의 공방들이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지원사업의 의미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으로 누구의 삶이 아닌 바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벌이는 경험의 경험, 경험들의 축적이다. 생활문화플랫폼에서는 이 주체들을 생활문화디자이너로 호명하며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일깨운다. 8공주팀과 맛보자팀의 15명의 생활문화디자이너들은 이 축제에서 정신없이 스친, 어찌면 의미 없을지도 모를 사람들의 북적임보다 스스로에게 여운이 남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만나장’과 두 팀의 지난 시간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길 바란다. 지역의 정치인들도.





심한기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컨설턴트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센터장



일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나눔

—
잘 보이지 않는 문화와 사람의
향기와 가능성을 찾아가고,
자극하고, 성장시키며
긴 호흡으로 든든한 문화의 뿌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기도 최북단, 북쪽으로는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경기도에서 5번째로 큰 지역이지만 인구 5만이 되지 않는 연천군, 그곳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천군은 어떤 이미지들로 호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군사지역, 한탄강, 전곡리 선사유적지, 재인폭포 이외에는 별다른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면 더욱 할 말이 줄어들다. 문화적 상상이나 이미지가 빈약해 보이는 연천군에서 특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2019년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문화적 일상을 상상하고 시도하는 과정들이 시작되었다.

연천문화원과 연천문화예술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2019년 경기생활문화플랫폼, <경원선 연천마을 생활문화플랫폼 '라운지 문화만상회'>이다. 제목으로만 보면 특별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연천군이 지닌 문화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면 아마도 연천군에서는 최초의 시도일 것 같다. 연극이나 무용 등 개별 문화예술단체를 제외하고 연천군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식적 단체는 연천문화원이 유일하다. 문화예술의 환경이 넉넉지 않은 지역문화

원은 대부분 노년층 중심의 전통문화 활성화에 집중한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도 일상에서의 다양한 생활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있기에 특정한 장르나 영역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연천문화예술학교가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올해 첫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작은 진통들이 있었다. 기존 문화예술사업들이 '사업'이라는 제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신나는 상상력과 일상적인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상황과도 연결된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도 사업이라는 이름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적 틀을 넘어 매우 일상적이면서 보편적인 사업 방식을 넘어서야 하는 지향들이 있다. 특히 잘 보이지 않는 문화와 사람의 향기와 가능성을 찾아가고, 자극하고, 성장시키며 긴 호흡으로 든든한 문화의 뿌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연천문화예술학교와 기획자의 혼란과 어려움은 매우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사업 초기 본 사업의 지향과 본질을 이해하며 실제 과정으로 풀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 축제 현장에서 나누어진 '라운지 문화만상회'가 태어난 거다. 기능을 채우거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거나 일시적 상상력으로 준비하고 체험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다. 올해 사업의 과정에서는 서로 모이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만나고,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각색하고, 공유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심에는 네 명의 생활문화디자이너(진세린, 박유진, 우해경, 김수정)와 1명의 코디네이터 그리고 연천문화원의 책임 기획자(김탄일)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연천문화원과 연천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 기획자, 극단에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을 위해 초대된 능력 있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연천에서 소소하게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왔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의 즐거운 협연이 '라운지 문화반상회'로 스며들었다.

4명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은 각자 7~8명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지역의 역사와 일상적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갔고 그 이야기들은 보이는 라디오 극장(이야기 극장)이라는 재미난 형식으로 각색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모이고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한 4명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소회는 소박하지만 잔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진세린

현재 부동산 컨설턴트를 하고 있으며 귀농을 하였습니다. 문화반상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열고, 연천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한 첫 동기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연천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문화반상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반상회가 더 발전되어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우해경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첫 만남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때론 감동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 인간관계를 거치며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생활문화 반상회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열심히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만나며 이전의 인간관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개인 삶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도 얻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유진

김수정

문화 반상회는

특별한 이벤트나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나눔이다.

다소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2019년 10월 마지막 날, 연천문화원 마당에서 그동안 흘러왔던 '라운지 문화반상회'의 성과 공유회가 작은 축제의 형식으로 문을 열었다. 원래는 경원선 연천역 급수탑공원에서 많은 주민들과의 호흡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으나 돼지열병으로 두 번의 장소가 변경되면서 연천문화원 마당에서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당일 축제는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성과 공유회와 함께 연천문화원이 추진했던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청춘극장'과 연천의 문화 동아리 발표회가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그동안 연천문화원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모여져서 진행되었고 '라운지 문화반상회'의 성과공유는 그 간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 극장'의 공연이 핵심이었다. 시작 즈음에 4명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의 이름이 호명되며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으로서 진행되

었던 긴 과정들을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축제 장소가 변경되는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존 공연중심의 축제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축제’가 되었다면 더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내년에도 연천문화예술학교가 본 사업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으려면 올해 함께 했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의 과정과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일상 속에서 발견되고 시도될 수 있는 과정과 힘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올해 등장했던 생활문화 디자이너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담은 주민들도 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문화적 환경과 현실 속에서 기존의 형식과 틀을 넘어서며 생활 속에서의 문화, 생활 속에서의 사람과 이야기를 찾아가고 만들어가려는 연천문화원과 연천문화예술학교의 첫 시도에 잔잔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문화 반상회는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며 특별한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나눔이기에 ‘라운지 문화반상회’는 즐겁게 길게 호흡하며 연천의 문화를 꽃피우는 불씨가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해본다.





안태호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컨설턴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협동조합 이사



나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야속한 바람이 불었다. 전시를 위해 탁자 위에 진열해 둔 도자기가 밀려 날아갈 만큼 강한 돌풍이었다. 행사장 곳곳에 놓인 온갖 종류의 재료와 물품들이 들썩였다. 의자가 바람에 떠밀리고, 현수막이 출렁였다. 이래 서야 어디 행사가 되겠나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행사는 무난하게, 아니 흥겹게 마지막까지 질주했다. 커다란 축제는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고 담백한 맛이 있는 공유의 자리였다. 관객보다 먼저 웃는 사회자의 너털웃음도, 중간 중간 나오는 공연자들의 실수도, 여러 동아리들이 준비해 온 체험 활동도 보는 이의 마음을 흐트럽게 했다.



생활문화 축제를 참관하게 되면 언제나 축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애초에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사회통합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의례에 가깝다. 지역의 역사적 연원이나 종교적 전통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일상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평안을 도모한다. 그렇다면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축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축제와 성과공유회는 어떻게 다른 걸까, 그저 규모만의 문제일까, 축제의 관객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생활문화 영역에서 축제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생활문화의 주요한 축은, 좀 투박하게 요약하자면 일상의 가까운 곳에서 즐거움의 플랫폼을 만들고 교류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축제에는 원심력이 작동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갈구하게 되고, 이는 축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흔히 만나게 되는 지자체 축제에 각종 연예인들이 출동해 예산을 펴펴 쓰게 되는 구조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축제는 발표회든 성과공유회든 이름이 어찌됐든 간에 생활문화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참여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외연 확장의 기회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당연히 행사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다른 이들이 접하고 호감과 매력을 느껴 참여자

들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옴팡난장은 그런 지점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옴팡의 동아리들이 일 년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리라는 것을 진행자나 참여자나 모두들 알고 있는 듯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초대 공연이나 부스를 최소화하고 동아리에 참여한 팀들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한 행사는 사이즈를 재서 맞춘 옷처럼 참여자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날 특히 인기가 많았던 팀은 발효 동아리 <곰팡>과 <술 빛는 마을 사람들>이었다. 옴팡의 이름과 곰팡이를 절묘하게 조합한 <곰팡>과 전통주를 빛는 <술 빛는 마을 사람들>은 직접 만든 치즈와 술을 가져와 시식, 시음 행사를 가지며 축제 참여자들의 눈과 입을 붙드는 데 성공했다. 강력한 바람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캘리그라피 동아리와 드로잉 동아리의 전시/체험, 도예 전시와 체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발 마사지 동아리 <발사자>는 발 마사지 체험을 진행했고, 쥘베 및 카혼 동아리 <쿵치타치>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쥘베와 카혼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10월치고는 혹독한 날씨에도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각종 체험과 공연을 즐겼다.

이날 필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옴팡의 친성원 운영자가 한 여성과 자이브 댄스를 추는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온갖 미디어에서 늘씬한 신남선녀들의 퍼포먼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웃들의 무대가 주는 친근함과 뜻밖의 해방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부러움과 감탄을 숨기지 않고 활짝 웃으며 이들의 공연을 즐겼다. 누구든 가장 익숙한 미디어는 몸이다. 사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 자유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춤은 몸을 써서 자유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날 함께 무대에 오른 아프리카 댄스팀이 주던 해방감도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날의 무대를 함께 본 이들은 ‘춤추는 삶’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생활문화의 즐거움은
나 홀로 기쁨을 만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그 즐거움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 동아리 <아드레날린>과 <쿵치타치>의 공연도 악기와 음악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 누군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재산, 일상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을 만큼의 건강, 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악기를 꼽았다. 사람들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하고 서로 소리를 맞추며 활동하는 즐거움에 대해 상상해보게 되는 시간이



었다. 생활문화의 즐거움은 역시 나 홀로 기쁨을 만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그 즐거움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배우고 옴팡지게 놀아보자”라는 옴팡난장의 부제는 축제와 옴팡 활동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최근 생활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점이다. 물론, 장기간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은 전문가를 통한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직업적인 활용이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활문화의 중심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아리, 동호회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제한 없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 배움의 모든 영역을 생활문화 안에 가둘 수는 없겠지만, 생활문화의 큰 보람이나 즐거움 중 하나가 배움이라는 것을 굳이 가리거나 숨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옴팡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왔다. 초기에는 마음에 맞는 이들이 모여 모임 몇 개를 운영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공간을 사용할 시간을 조절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까지 생긴다. 어느새 옴팡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200명 안팎에 이른다. 동아리 영역도 마라톤, 술 빚기, 발효, 인문학, 여행, 음악, 댄스 등등 다양하게 뻗어있다. 지금까지는 상근자를 따로 두지 않았는데, 공간 사용자가 많아지며 상근인력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천성원 운영자는 올해 축제의 성과를 동아리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서 찾는다.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 요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것이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동아리 활동의 특성상 서로 쉽게 만나지 못했던 구성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이야기다.

옴팡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을 만들고 즐기는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옴팡이 자리 잡은 곳에는 문화기반 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동네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축제는 작년에 이어 옴팡이 지역에 건네는 인사이기도 하다. 나의 즐거움을 구성원들의 즐거움으로, 다시 구성원들의 즐거움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확장하길! 배움을 기반으로 옴팡지게 놀아보는 옴팡의 실험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은혜

매일매일 업무와 마감일에 쫓기듯 살다가 만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취재단과 포스트다사리를 통해, 소모되는 삶이 아닌 나와 우리를 보살피는 또 다른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있는 직장인이자 하룻강아지 같은 예비 문화기획자입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익숙하지 않았던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형태와 활동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집과 회사만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생소한 지역의 동네를 직접 찾아가고 축제 현장에서 깊어가는 계절을 실감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큰 경험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함께'의 힘과 더불어 좋아서 하는 일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이 얼마나 주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마음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바탕을 캔버스 삼아 익숙한 듯 새롭고 낯설게 전환해 보려는 생활문화 단체들의 재미있는 시도와 기획력을 흠뻑 흡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내손의 반딧불 축제

버스에서 내리자, 주택 재개발 사무실과 부동산이 보였다. 처음 와 본 낯선 동네, 도로 앞 개발을 알리는 간판들로는 어떻게 동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한 발 두 발 마중 나온 포스터를 따라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반딧불 축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도시의 흔한 '중앙공원'들보다 작고 낮은 곳에서, 노랑과 유쾌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축제 현수막 너머에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릴 땐 집 앞 놀이터에만 나가도 축제 같은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동네 놀이터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다. 아기자기하게 준비된, 작지만 좁지 않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미끄럼틀을 타기도, 어른들과 함께 체험 활동과 공연을 즐기기도 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어울려 놀고 있었다. 한눈에 그림고 반가운 유년시절의 기억이 끊어올랐다. 알록달록한 안내부스 앞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친절한 안내를 입장권처럼 받아들고 축제 속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종이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집 조명 만들기'였다. 집 모양의 종이 전개도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린 후, 칼로 하나하나 오려내고 테이프로 조립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많이 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필자는 별 모양, 달 모양, 욕심껏 그린 그림들을 오리며 함께 앉아 축제를 즐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스 담당자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놀이터가 20년의 분쟁 끝에 재개발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과 다른 지역의 참여자 모두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곧 사라지게 될 마을의 중심지인 중앙공원 놀이터는 그동안의 시간과 역사를 생각하게 했다. 이곳에 도착한지 한 시간도 안 되었지만, 종이 집을 오리고 붙이는 손길에 애뜻한 의미가 더해졌다.

한 손에는 열심히 만든 조명을, 다른 한 손에는 축제의 묘미인 먹거리를 들고 다시 축제를 누비기 시작했다.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하여 프랑스 자수를 이용한 에코백 꾸미기, 머그컵 디자인하기, 못 쓰는 자투리 나무로 목공 체험하기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축제를 기획한 <내손의 반딧불> 단체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 온 생활문화 워크숍 활동들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축제 3주 전부터 매일같이 만나 기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각 부스별 담당 선생님들 역시 업사이클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다. 특히 목공 업사이클링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는데, 무료로 운영되는 강좌임에도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며, 수업을 통해 의미 있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해하셨다. 필자 역시 부스 옆에 전시된 목공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분들의 기분에 공감할 수 있었다.

5시,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건반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얼른 자리를 잡고 공연을 시작한 <모노 앤 보나>의 감성적인 노래에 귀 기울였다. '어디에든 있다'라는 노래로 시작한 공연은 '가을이 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 Top of the world'로 축제의 계절감을 물씬 느끼게

—
자녀들과 함께 조명을 만들고 있던 한 가족은 <반딧불 축제>를 기획하신 박준하 작가님의 '목공 업사이클링' 수업을 계기로, 이웃 도시 안양에서 찾아오셨다고 한다. 화창한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고 보니 정말 자녀와 축제를 즐기는 참여자분들이 많았다. 공원은 축제를 즐기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난날의, 앞으로는 없을 구 생명교회 정류장)

해주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영화인 <알라딘>의 주제곡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충분했다. 뒤이어 박세영 바이올리니스트의 서정적이고 열정적인 바이올린 연주도 모든 연령층의 호응과 앵콜을 불러일으켰다.

해가 지고 쌀쌀해진 저녁 바람에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노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놀이터 건너편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축제를 밝히고 있는 동네의 소박하고 온기 어린 불빛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곳도 곧 저렇게 높고 화려한 불빛들로만 가득하겠다고 생각하니, 축제의 막바지가 더욱 아쉽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축제의 끝 무렵, 행사를 기획한 <내손의 반딧불> 단체의 김수경 대표님을 만나 반딧불 축제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표님은 사람도, 희망도 함께 모여야 반짝일 수 있는 것처럼 축제 역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반짝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6년 전, 작가로서 처음 만났던 내손동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살면서 조금씩 예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동네와 지역 주민들에게 매력을 오롯이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내손의 반딧불> 대표직을 맡으며 쌓아온 동네 어머님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내손동에서의 마지막 축제를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의미가 행사에 잘 녹아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혀주었다.

이어 박준하 작가님께 <내손의 반딧불> 단체의 활동 의미를 물었다. 이에 “반딧불이 전기나 조명처럼 눈부신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희망과 위안될 수 있다. 생활문화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손동에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소통하며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재개발되고 있는 내손동에 희망과 위안이 되고 싶다.”라고 전하였다.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나오며 토요일의 한나절을 보냈던 내손 중앙공원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했다. 이제는 내게도 다시없을 추억이 되었다는 헛헛함이 느껴졌다. 지난날의, 앞으로는 없을 舊. 바로 오늘, 생명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철거를 앞둔 동네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작품으로 만들어 사라지는 것들에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내손의 반딧불> 단체와 내손동 주민, 예술가들의 세심한 생활 속 지혜와 예술적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마지막 정류장을 떠나올 수 있었다.





이해구

공연기획사 "freshmotion studio"를 운영을 하고 있는 춤추는 기획자 이해구입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을 통해 경기도에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축제만이 전부가 아닌 마을과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들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생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150

〈진접문화의집〉 취재를 가기 전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취재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야 하나라는 고민도 들었지만, 전부터 한 번은 꼭 가 봐야겠다고 생각한 단체여서 그런지 막상 취재 당일에는 기분이 들떴다.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4년째 진행 중인 단체의 이야기를 단지 하루의 행사로 취재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 행사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단체의 관계자 및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한 생활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1명으로 인하여 4명의 삶이 변화하였고, 그 4명이 150명의 변화를 일으켰다.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축제는 으리으리한 무대와 조명, 유명 가수의 공연 그리고 먹거리와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는 축제는 ‘잔치’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이상한 축제의 매력에 빠졌다. 웅장한 스케일의 축제가 아니었음에도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런 축제가 필자는 더 마음에 든다. 이제부터 사십이 많이 들어간 현장리뷰 글을 쓰려 한다.

진접문화의집의 ‘조미자 관장님’을 첫 번째로 인터뷰하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활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조미자 관장님曰

“생활문화는 도제식의 교육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재미와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진행하신 축제를 살펴보니 축제를 하는 사람과 오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친밀하고 즐거워 보였는데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인터뷰가 끝나고 행사를 둘러보니 관장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느껴졌다. 축제를 준비하는 생활문화 디자이너와 담당자, 그리고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의 관계가 모두 끈끈해 보였다. 처음 이곳을 방문한 필자도 그들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진집 시민처럼 느껴지게 했다.

다음으로 <진집문화의집>의 생활문화 디자이너인 박인희 선생님을 인터뷰했다. 박인희 선생님께서 기획한 ‘또 다른 나’ 프로그램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스모키 화장을 하고 화보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았던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욕망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박인희’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여러 사람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를 맺었다. 그 이후 화장한 모습을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축제 당일에 전시하였다. 박인희 선생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박인희 선생님曰

“프로젝트 매니저 없이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싶습니다.”

박인희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재미난 것을 찾아낸 아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로 자신의 무언가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생활문화 디자이너 백진숙 선생님을 인터뷰했다. 백진숙 선생님께서 기획(디자인)한 프로그램 ‘백진 공주와 문집 친구들’은 코스프레 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그것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함께해 준 문집 친구들은 그동안 <진집문화의집>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들이라고 한다. 혼자 했으면 어색했을 테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부끄럽거나 민망한 감정보단 재밌고 즐거운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 축제 당일에도 다 같이 코스프레 옷을 입고 축제에 놀러 온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며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백진수 선생님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이 활동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동안 숨겨두었던 개인의 욕망인 동화책을 발간하고 친구들과 탄짓도 하면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 ‘백진숙’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디자이너 황란경 선생님을 인터뷰했다. 황란경 선생님은 ‘꿈틀 작은 날개 짓’이라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 낯선 여행지에서 느낀 플라 망고에 빠져 춤을 좋아하게 된 황란경 선생님은 따로 춤을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춤의 이해도와 표현력은 프로에 가까웠다. 인터뷰 내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작품 창작 노트를 필자에게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춤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필자는 크게 감동했다. 황란경 선생님은 춤을 추며 몸짓의 자유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전하였다. 물론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춤사위가 전문 무용수의 몸짓과는 다르지만 황란경 선생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몸짓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3시간이 훌쩍 넘어 어느덧 행사가 시작되었다. 축제를 즐기러 오신 관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한쪽 편에서는 부침개를 부치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자도 자리에 앉아 진접 시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도 진접 시민인 듯한 느낌을 받으며 행사를 즐겼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필자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다. 포장하지 않은 진접 시민들의 아름다운 민낯이다. 축제를 즐기는 순간들이 필자는 행복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진접의 생활문화를 즐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다음에도 그들이 하는 축제에 가보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다. 그만큼 그들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전형민

닉네임은 '동그랑'. 『문화기획선 고잉미랑호』의 문화기획자이자 『청년협동조합 뒷북』의 커뮤니티 매니저이기도 하며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 중인, 이른바 N잡러. 현재는 '저임금 × 불안정고용 × N개의 노동' 상태로, '적정임금 × 안정고용 × 한 행복이 될 때까지' 자립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선호하고, '심 안의 심 안의 심'처럼 원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우며 모순인 듯 역설 같은, 그러나 진실이 담겨 있는 것들에 천착한다. '고미랑'을 사랑하여 '곰이랑' 산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지금까지 총 네 군데의 생활문화 현장을 취재했다. 현장을 글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현장을 그대로 옮겨올 순 없었고, 묘사만 하기엔 작가로서 내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그렇다. 생활문화 현장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필요했고, 그것이 글에 녹아들기를 기대하며 취재단 활동을 해온 것 같다. 불과 네 번밖에 되지 않는 취재 경험이 나의 관점과 언어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물론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취지와 생활문화 취재단 운영의 목적을 나름 염두에 두면서 양쪽 욕구(또는 요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라는 해당 사업의 소개문에 '생활문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걸 나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선 두 가지 노력이 필요했다. 첫 번째, 저 문장은 너무 낯간지럽다. 적어도 내게는. 두 번째, 현장성이 담겨야 했다. 내가 경험한 생활문화를 말이다. 그래서 내가 정의한 생활문화는 '일상을 일상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활문화'는 누가 정의하든 텍스트에만 머무를 수 없고 캠페인이나 프로파간다도 아니므로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실천에 있지 않나 싶다.



이호백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당탕탕 소통 프로젝트

"心通" 심통

1시30분: 전시<心通 부리기>

전시 관람과 다양한 활동 참여

2시30분: 그림자 인형극

3시: 이호백 선생님의 재미난 그림책 이야기

일 시: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시 간: 오후 1시30분 ~ 5시
인 원: 40명(신청순)
참가비: 1인 1만원
참여방법: 내이비클 작성 후 참가비 입금
장 소: 그림책NORI (분당구 수내동 108-16)
문의: 010-4283-8440 이덕준



어? 손가락 보인다!

지난 11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현장 취재를 위하여 '그림책 문화공간 [NORI]'에 다녀왔다. 사업 참여 단체인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놀이터이기도 한 이곳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까지 취재했던 다른 현장과는 달랐다. 물론 모든 생활문화 현장이 저마다 고유한 곳일 테니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곳은 특별한 현장이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행사의 주제와 소재가 알차고 크거나 헛수로 측량하긴 어렵지만 취재단으로서, '문화기획자'로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만큼 글감이 풍성한 현장이었고, 글을 쓰고 싶게 하는 곳이어서 그 풍성한 글감 중에 일부를 조심스럽게 취사선택해야만 했다. 지금부터 <우당탕탕 소통 프로젝트 "心通(심통)">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현장 취재 날은 비가 내렸다. 비슷한 모양의 단독 주택들이 늘어선 주택가들 사이에 단체의 행사 장소인 '그림책 문화공간 [NORI]'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장소가 북적인다. 비가 와서인지 더 따뜻해 보이는

조명과 훈훈하게 서로를 덥히는 체온들. 한창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 실내를 둘러보는데, '오, 입체적이다. 재밌는 공간이네.'라는 생각을 했다. 책방인 듯 책방 아닌, 책방스러운 문화공간이랄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진 해당 건물은 여느 빌라와는 다른 구조였고, 마치 비밀의 방을 찾듯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각각의 장소로 옮기는 발걸음을 설레게 했다. 이내 공간이 장소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간(space)이 물리적 개념이라면 장소(place)는 인문적 개념이란 점에서 그렇다. 'NORI'라는 공간과 <心通(심통)>이라는 콘텐츠를 매개로 일시적이더라도 만들어진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와 그들의 물입이 공간을 장소로 전환해 낸 동력일 것이다.

매개 중 하나였던 <心通(심통)>의 구성은 이렇다. 지하 1층에선 "心通 부리기"라는 전시와 "꼭두각시"라는 제목의 인형극, 그리고 이호백 작가의 재미난 그림책 이야기가 이어졌다. 지상 1층에선 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손편지 쓰기", "비밀 인형 만들기", "추억인형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빼적빼적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에선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따뜻한 차와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핫도그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은 누구의 지시나 교육을 받지 않고도 집중하여 몰입했고 마음껏 즐기는 듯했다. 실로 신통하고 심통(心通)한 모습이다. 한편 동네 엄마들이 직접 기획하여 연출한 인형극 "꼭두각시"는 아마추어여서 어설픈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재미로 기능했던 프로그램이었다. 극중 꼭두각시가 오지 않는 신랑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도록 기





다리는 장면에서 스크린에 꼭두각시 인형을 집어 든 손가락이 보이자 관객석에 앉은 한 아이가 소리쳤다. “어? 손가락 보인다!” 그 돌발 발언에 모두 한 번 웃고, 꼭두각시와 신랑이 만나는 결말에 이르러 둘이 결혼하여 한 아이, 두 아이, …… 다섯 아이를 넘게 낳았다 하니, 관객석에 앉은 다른 아이가 “부자집이네.”라고 말하자 모두 배꼽 잡고 두 번 웃는다. 내가 발견한 <心通(심통)>의 심통(心通)한 모습들이다.

이렇듯 생활문화 취재단으로서, 문화기획자로서 <우당탕탕 소통 프로젝트 “心通(심통)”>과 이를 기획한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은 여러모로 내게 인사이트를 주었다. 추위를 잊게 한 공간의 모호한 느낌과 더불어 이 인사이트 역시 모호하긴 했으나, 행사가 끝나고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이지는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모호함은 다행히 좀 더 명확해졌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축제를 기획한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처음에는 ‘그림책 NORi’라는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과거 어린이 영화제를 준비할 당시 흥미로운 애니메이션과 유명한 배우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더빙해서 만든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림책’이 갖는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보게 되어 ‘그림책 NORi’라는 서점을 열게 된 거죠. 당시엔 이름만 서점일 뿐이지 ‘문화 공간’이라는 컨셉트로 이 공간을 계획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

위주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죠. 책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하고 같이 놀거리를 만드는 형태로 흥겹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처음엔 이곳에 손님으로 왔던 분들이 어느새 같이 협업해서 기획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NORi’가 물리적 공간이라면 이 공간에 의미와 콘텐츠를 채우는 콘텐츠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은 ‘그림책 문화공간 NORi’라는 공간과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2.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취지와 저희 단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상 속에서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것,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흔드는 활동이 ‘우당탕탕 예술놀이단’이 지향하는 것이었다면 생활문화플랫폼 사업도 비슷한 취지와 콘셉트였던 거죠. 예술에 대해서 만만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기획자가 될 수 있고, 예술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3. 생활문화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생활문화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생활 문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생활문화 디자이너'라는 용어 이전에 'Player'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Player는 노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연주자, 선수, 전문가 등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Player'랑 '생활문화 디자이너'가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뭐든 기획을 할 때 처음엔 본인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템이 누구에게 먹힐까?', 기획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놀면 즐거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나아가 이것을 현실에 구현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를 잘 알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생활문화 디자이너의 역할이라. 글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문화 디자이너이지 않을까 싶어요.

4. 사업 초기와 사업 진행 이후 각각 느꼈던 '생활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달라졌다기 보다 확장된 것 같아요. "생활문화가 뭐예요?"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라고 답하거든요. 그림책으로

예를 들어 보면, 같은 그림책을 스무 살 때 봤을 때랑 나이가 들어 다시 봤을 때랑 다가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그림책의 미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생활문화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고, 그 무언가가 추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때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생활문화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생활문화'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생활문화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먼저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것, 각자의 동네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무대가 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웃음)

북적거리던 'NORI'가 조용해졌다. 4시간 전, 네 번째 생활문화 현장인 이곳에 오기 위해 오르던 호젓한 분위기의 동네 언덕길에 창밖으로 보인다. 다시 균형을 되찾은 안과 밖의 호젓한 분위기. 여전히 비는 내렸고, 날은 더욱 어두워졌다. "결국엔 생활문화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느 한 곳에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일상과 무대의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는 이지는 대표의 마지막 한 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김성원

오랜시간 무용과 창작, 예술교육과 기획활동을 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분들과 생활 속 문화와 예술을 함께하고자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움직임디렉터, 움직임마스터, 건기멘토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으로서의 확장을 위해 포스트다사리 기획자과정과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관계하고 공감되는 삶 속의 예술과 문화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본연의 나를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시간이 보다 많아지길 그리고 행복해지길. 이 모든 과정이 나에서 타인에게로 그리고 보이 지않는 골목 그 이딘가에도 퍼지고 스며드는 삶이 바로 생활문화이지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취재단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문화플랫폼 사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들락날락 예술가게의 지동문화살롱

— 문화예술의 내재된 에너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게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의 마지막 날, 가을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겨울바람이 두 뺨을 스치며 겨울맞이 인사를 전하는 듯했다!

2019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참여 단체의 축제 현장을 보기 위해 수원의 '지동'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좁은 2차선 도로 어딘가에서 도착지를 알리고 있었지만,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그 어딘가쯤에서 간판도 조명도 눈에 띄지 않는 천 조각 하나가 문 한편에 걸려 있었다. <들락날락 예술가게>의 소박하디 소박한 문구를 보기도 전에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어르신들 몇몇이 유유히 지하 어딘가로 내려가시며 '히히호호'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 때문이었다. 웬지 예사롭지 않은 느낌으로 슬며시 따라가보니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 좁은 입구와 계단 밑으로 조심스레 내려가니 '지동문화살롱' 홍보물이 붙어있었고, 공연 전 리허설이 한창인 듯했다.



적당히 아담하고 적당히 아늑해 보이는 이곳에서 생활문화 축제의 막이 오를 거라 생각하니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왔다. 축제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하여 공간을 둘러보니 공연장인지 동네 사랑방인지 헷갈릴 정도로 동네 어르신 몇 분은 이미 자리를 잡으시고 두런두런 수다 삼매경에 빠져 계셨고, 공연 준비에 한창인 생활문화 디자이너와 공연 참여자, 기획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 공간에서 동시에 마주한 여유로우면서도 분주한 분위기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참으로 유니크하고 마법 같은 공간이자 광경이었다. 이곳이 “진정한 생활문화의 장”이라고 온 감각이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지동문화살롱’ 축제를 기획, 총괄한 <들락날락 예술가게> 단체장 및 생활문화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다운 말투와 온기 있는 표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마을지기’ 같은 친근한 느낌을 자연스레 받게 되었다.

먼저, 단체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렸다. <들락날락 예술가게>는 2017년 예술가들이 수원 지동 주민들의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에너지를 ‘예술’을 통해 다시 찾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1년차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과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자, 사업이 주춤할 즈음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을과 예술이 함께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던 대목이다.

이어 <들락날락 예술가게>에서 기획한 축제 ‘지동문화살롱’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렸다. 이에 ‘삶 속에서 함께하는 예술’로 각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마을라디오 극장> 컨셉으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발굴



된 총 9명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연으로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 모두 생활문화 활동부터 기획까지 함께 만들어가며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마을 속에서 피어나는 ‘삶 속의 예술’이 지속 및 확대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표님의 바램을 조심스럽게 보태셨다. 필자는 축제의 기획 의도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대표님의 생각을 인터뷰 내내 엿볼 수 있었다.

—
마지막으로 2019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 마을 속 보석과 같은 인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생활문화 디자이너로 성장하면서 마을 커뮤니티와 마을 예술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보태어 이웃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민들과 공감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마을과 예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게 한다’는 문화예술의 내재된 에너지를 마을 곳곳에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온기 가득하게 살아 숨 쉬게 한 이곳! 지동 주민들과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들락날락 예술가게> 단체의 인터뷰와 축제를 통해 ‘사랑방’, ‘마을지기’, ‘예술가’ 그 어디쯤의 동네 언니로, 이모로, 할미 할배로, 젓먹이 아가들까지 들쳐업고 모이는 여기가 생활문화가 숨 쉬고 디자인되는 문화 커뮤니티임을 온 감각과 감성이 일깨워 주었다. <들락날락 예술가게>와 마을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이야깃거리로 넘실넘실 춤추듯 마을 여행을 지속하기를 바라며... <들락날락 예술가게> 축제의 현장 리뷰글도 따뜻하게 마무리해 본다.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02



신지은

올타리넘어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운영단체)



그녀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결국은 예술

“함께 연주한지 20년이 되었죠. 참 오래 만났지요?”

—
어려움과 무관하게
‘좋으니까’
공연을 앞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웰컴 투 시민예술시대>에 참여한 동호회 분들은 아주 참 오랫동안 만났다. 3년, 5년, 10년, 20년.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공연이 다가오면 매일 매일 하루 종일 만났다. 세상에 20년 동안 그렇게 자주 만나다니! 그분들은 서로 만나면서 좋기만 했을까?

공연을 앞 둔 동호회 분들에게 질문했다. “연습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죠?” 심심한 질문에 웃음이 함께 한 대답이 다가왔다. “당연하지요. 그래도 좋으니까 연습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죠.” 맞다. 당연하다. 누군가를 만나고, 같은 무언가를 한다는 게 힘들기만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테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무관하게 좋으니까 공연을 앞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 색소폰, 통기타, 하모니카, 민요, 전통 춤, 노래, 이 모든 것들, 흔히 문화와 예술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서로를 20년 동안 만나게 만들었을까?



“우리끼리만 연주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팀이랑 함께 연주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본성은 독자적일 수밖에 없다. 사진을 찍어도, 노래를 불러도, 시를 써도 언제나 문화예술 행위자는 자신의 자신만인 자신일 수밖에 없다. 행위자가 아마추어일수록 독자성은 강하다. 경제적 이익이 없기에, 요구와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다. 행위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욕망을 문화예술을 통해 실현한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과 성별, 계층과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아마추어 예술가였다. 짐작해본다. 그들은 실력과 연차에 따라 공연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참조할 필요도 적다. 연주 실력과 공연 매너와 상관없이 악기를 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몰입’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했을 테다. 독자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닌 그들은 커뮤니티를 달가워할까, 함께 연주할 수밖에 없는 공연 연주의 본래적 성격을 감안했을 때 ‘커뮤니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네트워크’를 원했을까?



합동 연주는 고단한 작업이다. 우리 팀의 특성과 실력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인식에 따라 어떤 악기와 협연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특성과 실력 역시 중요한 요소다. 기획자인 음악 감독의 도움으로 함께 할 연주 팀이 결정되었다고 고단함이 끝나지 않는다. 연습 시간, 연습 공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다. 팀끼리 힘겨루기 역시 만만찮다. 무엇보다 합동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공연의 실패 요인을 있는 그대로 찾기 어렵다. 그들은 아마추어다. 혼자 연주해도 충분히 몰입을 경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동호회 회원들과 공연으로 경이로움을 선사받았을 수 있다. 그들은 왜 합동 연주를 선택했을까?

왜 합동 연주를 하시나요. 인터뷰를 허락한 동호회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화재단이랑 계속 이렇게 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친한 팀이라 같이 연주하는 게 즐거웠어요.” “에이, 예산 좀 많이 줘요.” 질문의 답을 찾기 쉽지 않았다. 동호회 분들은 ‘합동 연주’를 자연스



협력, 어려움, 상호성, 동호회,
아마추어, 커뮤니티, 합동,
과정, 참여, 네트워크 등
글 속에 등장하는
많은 키워드를 압도하는
어떤 것은 ‘예술’이다.

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합동 연주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대답한다. 많은 답 사이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다. 어렵게. 왜 그들이 합동연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답이었다.

“우리끼리만 연주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팀이랑 함께 연주하는 거예요. 관객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그런 걸까, 문화예술의 독자성만큼 상호성이 중요하기에, 그들은 관객을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합동 연주를 선택했을까?

“남편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폭 빠져 사는지.”

그녀는 분홍색 조끼와 연두색 치마, 색동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두 눈이 사라졌다.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일도 내켜 하지 않는 나는 그녀가 무척 궁금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녀는 웃었다. 부러울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춤 추고 노래하는 게 정말 좋아요. 남편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폭 빠져 사는지.”

결국 ‘예술’이다. 협력, 어려움, 상호성, 동호회, 아마추어, 커뮤니티, 합동, 과정, 참여, 네트워크, 글 속에 등장하는 많은 키워드를 압도하는 어떤 것은 ‘예술’이다. 그녀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최서아

서아책방의 대표이며, 문화기획에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이후에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 5기에 입학해 재미있게 놀며 배웠습니다. SNS 때문에 글과 멀어진 이들을 SNS를 통해 다시 글과 가깝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에서 <텍스트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청년인문융합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실시된 '어둠을 밝히는 인문동대'의 청년인문협업자로 활동하였고,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는 '낭독극장' 진행자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독서모임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문학 관련 문화를 기획하는 '문화기획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 및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생활문화 취재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 이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많은 생활문화 행사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스트다사리를 시작하면서 하게 됐던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들은 기존의 제가 기획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행사의 날짜들과 겹쳐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정도로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연결고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의 문화로 사람과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공동체 문화가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생활문화는 다시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생활문화의 활동들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역곡마을 문화축제

—
발끝에서부터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설레는 인의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역곡 빼꼼공원에서는 <역곡마을 문화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축제의 이름처럼 역곡마을을 사랑하는 단체들이 준비한 문화축제였다. 닭강정과 떡볶이 등이 있는 먹거리부스에서 시작해서 '나만의 가방 만들기, 미니스탠드 만들기, 우드책갈피 만들기, 전통탈 팬던트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까지 축제장은 공연과 체험부스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넘쳐났다.

여러 부스들 중에서도 우드책갈피 만들기과 전통탈 팬던트 만들기 부스에는 어린이 참여자들이 넘쳐났다. 조그마한 손으로 형형색색 매직을 잡고 팬던트와 책갈피를 색칠하는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 특히 전통탈 팬던트 만들기 부스에서는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전통탈의 모습을 팬던트로 만드는 참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통탈에 대한 흥미를 더했다.



[설레는 인] 알아가기

Q. [설레는 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설레는 인]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문화를 학습하고 생활문화를 향유하며, 지역에 문화전파를 실천하는 문화 공동체입니다.

Q. 역곡마을 문화 축제마당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부천 역곡역 주변의 문화를 사랑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나아가 멋지고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역곡마을 문화 축제마당을 준비 및 진행하시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양한 단체들이 축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근해지며 서로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마을의 곳곳을 다니며, 마을의 명소를 재발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축제를 준비하며 다양한 단체의 중앙적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생활문화와 단체 [설레는 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A. 부천 역곡마을의 생활문화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발끝에서부터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단체의 지향점입니다.

식전행사에는 어르신 문화단이 준비한 남도민요 '신춘향전'의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서 축제를 기획한 [설레는 인] 단체의 최수진 대표가 축제를 함께 만든 단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곡마을 문화축제 한마당>을 함께 만든 단체에는 지역에 문화 전파를 실천하는 마을 문화 공동체 [설레는 인], 연극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들이 모인 [빛나는 뚝배기], 은은하게 빛을 발하라는 뜻을 가진 [은가비], 맘이 젊은 시니어 할머니들이 모인 [어르신 문화단], 청춘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치얼스], 연기·안무·보컬을 배우고 경험하며 뮤지컬 공연을 하는 [역곡마을 설레는 뮤지컬 꿈의 학교],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로 랩과 힙합을 만드는 [랩쑹딩 힙합 꿈의 학교],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 책놀이지도사협회] 등이 있었다.

—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를 향유하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년 전부터 아동극과 마당극 등 공연 및 축제를 진행해온 [설레는 인] 단체의 최수진 대표는 이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역곡의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였다.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역곡마을 문화축제 한마당>을 준비한 단체와 그 회원들은 서로 시간을 맞춰 연습하고 무대 위에 올랐다. 덕분에 이들은 마을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천 역곡마을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를 향유하며 이를 통해 생활문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석현

나는 글쓰기를 즐겨한다. 블로그에 나의 생각과 일상의 깨우침을 적어왔다. 쓰다보니 15년이 훌쩍 넘었다. 글쓰면서 나의 성장이 조금씩 느껴졌다. 성장할 때 행복하다. 행복이 쌓이다보니 글쓰기도 늘었다. 세월이 필력이 되어 생활문화 취재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생활문화 취재단 참여를 통해 생활문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졌다. 생활문화 공동체에서 성장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

나의 본업은 진로코칭이다.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전문강사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노동의 가치', '꿈'에 대해 강의한다. 신중년들도 진로코칭한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자신의 적성을 찾게 하고 인생3막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나의 일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신중년들에게 자신들의 강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 및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강렬한 느낌을 주었던 활동이었다.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들은 화려한 조명이나 수많은 관객에 둘러싸여 공연을 하는 것 보다 생활문화를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다. 그 행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리고 파주필수다 동아리들의 콜라보가 인상적이었다. 캘리그래피를 하는 동아리의 작품이 서각동아리의 서각작품에 투영되고, 서각작품이 플루이드아트로 거듭나는 것을 보았다. 각 동호회의 강점을 활용해 이웃 동호회와 접목하였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생활문화가 아닐까.

나는 "문화"란 특정시대, 특정세대, 특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생활문화란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다.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문화 생활이 생활문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을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콘텐츠가 그들만 누리는 문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마을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생활문화"다. 결국 '생활문화'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여 행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이야기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다!

—
공동체는 '다함께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오후 3시에 연천문화원 강당에서 [다함께! 新방자놀이]가 진행되었다.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발표회인 [다함께! 新방자놀이]는 연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호회들의 콜라보 프로젝트이다. 연천문화원에서 연천 내 동호회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성장을 위하여 발표회를 연 것이다.

올해 경기북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실외에서 진행하기로 한 축제가 축소되어 실내에서 열렸다. 그 과정에서 실외용 음향 장비로 빌린 것을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기종으로 변경하고, 공연의 동선을 다시 짜야 하는 등의 번잡함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동호회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고, 회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발표회 무대에 임하였다.

수줍은 듯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며 공연이 시작되었다. 어색한 표정은 시간이 지나자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바뀌었다. 이어지는 대사에 객석에서 맞장구를 친다. 무대 뒤에서도 긴장이 풀리며 웃는다. 동호회들의 공연이 무르익는다. 구경하던 분들이 웃는다. 무대의 잔치 분위기가 객석으로 이어진다. 강당의 객석까지 무대로 변한다. 모두가 어우러져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다.



새옹지마라고나 할까. 실외에서 한바탕 뛰어놀지 못하는 아쉬움은 사라진다. 방자의 우스갯소리에 강당 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 되어 추임새를 넣는다. 배우, 관객 너 나 할 것 없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작은 무대로 옮겨진 아쉬움은 새로운 무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바뀌었다. [다함께! '新방자놀이']가 '다함께'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연천문화원 생활문화 동호회 대부분은 배우고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활문화의 문화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 협업으로 하모니를 이루어낸 연천문화원 동호회는 다음과 같다.

마당극과 민요를 익히고 순회공연을 하는 [미연희단], 오카리나 앙상블 [꿈꾸는 오카리나], 복지센터 봉사활동에 최고 인기 그룹 [연천 아코디언 앙상블], 민요와 부채춤 동호회 [연천 민요 예술단]과 [한국무용단], 전통 북으로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연천 북소리]와 [팔팔하게 살자], 댄스 그룹 [실버스타]

대부분의 동호회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울고 웃는 것이다. 연천문화원 동호회 네트워크 발표회는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공동체는 '우리'다. 배우고 가르치며 소통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다함께'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공동체는 '밥상'이다.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눈다.



—
 신방자전은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생활문화 공동체의
 유익이다.



연천문화원에서 축제 뒷바라지를 맡은 동호회 담당 김문식 대리와 연출가 박봉학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동호회 회원들이 공연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행복하다는 김문식 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실내로 장소가 변경되어 갑작스레 장비를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실내 강당에서 더 즐겁고 신나게 공연을 펼치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잔치마당을 열 수 있어 행복했다.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경기문화재단과 상상캠퍼스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막이 내리고 출연자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봉학 선생님은 “신방자전은 춘향이와 이몽룡만이 아닌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이 생활문화 공동체의 유익이다. 또한 연극은 시간과 땀을 상당히 투자하여 만들어지는 활동이다. 이런 공연을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에서 진행함으로 생활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박봉학 선생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윤희

뒤돌아보면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놓치는 것들을 아쉬워하고, 가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늘 갈망을 한다. 하지만 내 주위를 살피며,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일상의 작은 것들에 행복해지는 내가 되고 싶다. 사각사각 언필 깎는 것을 좋아하고, 키보드에 올려놓은 손이 언젠가는 내 머릿속의 생각과 글자들을 잘 배열해 주리라 믿는다. 내년을 위한 다이어리를 마련했다. 내년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 및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문화’, ‘예술’이란 단어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생활문화 취재를 하면서 어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 늘 생활문화예술을 실천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확신이 들었다. 동주민센터에서 십 년 넘게 장구를 배우고, 시간을 쪼개어 연극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이들은 또 그 배움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무대라도 달려가고 있었다. 서툰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의 공연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올해의 공연, 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여러 동아리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바란다.



우리 동네는 문화예술 놀이터

광명 생활문화 가족극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 ‘생활문화’에 대해 생각해 봤다. 우리의 일상과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문화’라는 단어에,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해진 ‘생활문화’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으며 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경기문화재단의 <2019년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시민극단 광명> 단체의 생활문화 축제 이야기가 궁금해져 발걸음을 재촉했다.

“요새 누가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나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시골에서 광명으로 이사 온 할머니와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소통이야기를 담은 <뗏목! 광명할매>의 연극으로 축제의 첫 시작부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연극의 등장인물인 할매, 김 여사, 여고생, 취업 준비생은 필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늘 마주치는 이웃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려 하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섭이라 부르며 처음엔 거부했다. 좌충우돌, 웃다가 울다가 보니 그들은 어느새 가족이 되고, 진정한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극단 광명'의 단원은 전문 배우가 아니기에 연기가 완벽하지 않았다. 대사를 까먹고, 소품을 잊고, 내 차례가 아닌데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연기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무대에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들 바쁘니 시간 맞춰 연습하는 게 어려웠어요.” 광명에 95년도에 이사와 줄곧 마을에서 봉사를 하다가 연극을 하게 되었다는 ‘김 여사’ 역할의 최명숙 씨는 가족에게 받은 꽃다발을 안고 기뻐하면서도 공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그녀가 실수하고 당황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따뜻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할머니 춤 보러 왔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뽀뽀해 줄래요”

곱게 단장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일찌감치 무대 앞자리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왕 언니들(?)이 있다. 광명시평생학습동아리 ‘지란지교’다. 평균 나이 60이 넘어 보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발표 차례를 기다리면서 광명시민들의 다른 공연을 보고 있었다.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들의 공연 차례에서는 ‘화관무’ ‘한량무’ ‘사랑가’를 추며 맘껏 기량을 발휘했다. 공연을 집중해서 보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힘찬 박수를 보내는 10살 아이는 할머니가 예쁜 옷을 입고 공연하러 다니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광명고등학교 댄스 동호회 ‘혼동’의 조윤빈 학생은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멋진 춤 실력을 발휘하였다. 요새 시험기간이라 연습을 별로 못했지만, 이런 무대가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임하였다고 전했다. 댄스 외에도 랩과 풍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청소년 동호회들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공연을 통해 필자와 관객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
축제를 기획한 <시민극단 광명>의 이
미림 대표는 “광명지역 생활문화인들이
단순한 공연 발표에서 벗어나 온 가족
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공연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들 간 네트워크 결성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싶었다.”라고 전하였다.

이날 무대에서는 10대 이전의 아이부터 70대 이상의 어른들까지 모두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남도민요, 신바람 소리꾼 박봉학, 광
명 문화의집 동호회 이현소리, 아라리 전통 예술단 등의 시민공연으로 관
객들은 어깨를 들썩이고, 흘러간 옛 노래와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축제는 저녁 6시에 끝날 계획이었으나, 동호회들의 공
연은 몇 번이나 앵콜을 받느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럼에도 관객
은 더 늘어가고, 객석은 꽉 채워졌다. 시민들의 축제이자 세대 간의 소통
의 장이 되었다. 공연뿐 아니라 한쪽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동전지갑 만
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얼굴과 손등에 돌고래, 코스
모스, 잠자리 등을 그려 넣었고, 한쪽에서는 부엉이와 만화 주인공의 냅킨
을 뜯어 꺾꽂이 놀이 붙인 동전지갑을 만들고 있었다.

광명시민체육관 광장에서 온 가족이 와서 자전거를 타다가 노랫소리가 들
려서 들어왔다는 한 가족은 “청소년 아이들의 공연이 인상 깊었고, 아이
들이 좋아하는 체험부스까지 진행되어 흥미로웠다. 광명시민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지 몰랐다.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무대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
어지며, 세대 간·이웃 간의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소박한
마을축제의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는 문
화예술 놀이터’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생활문화예술의 의
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최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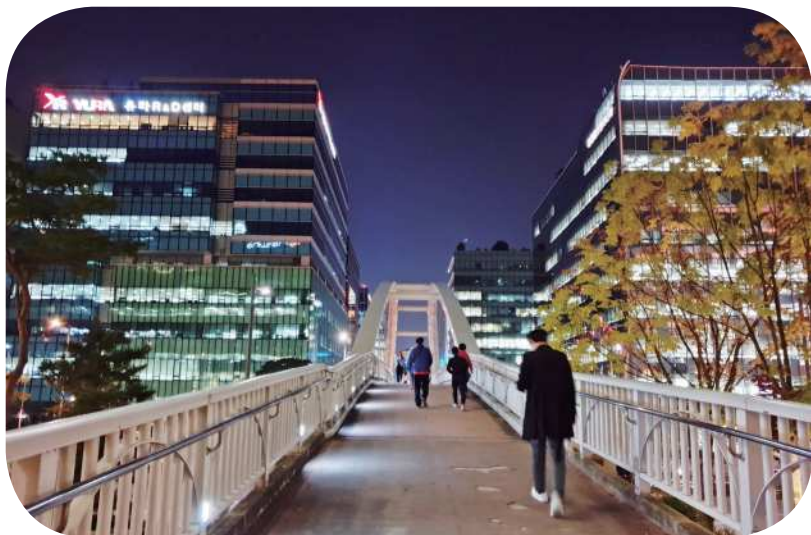
열정과 즐거움을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사람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준 직장인 생활문화의 활력소

가을, 어느덧 해가 짧아져 저녁이 빨리 찾아온다. 오후 7시가 되어도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판교 오피스거리에서 <판교직장인동호회 연합> 단체의 음악제가 열린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IT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판교를 생각하면 ‘삶’이나 ‘생활’의 느낌보다는 거대한 빌딩 숲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겐 이곳은 어떠한 생활공간이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이런저런 궁금증을 갖고 음악제 장소인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 도착하였다. 행사의 시작을 기다리며 본 음악제를 주최한 게임회사 직원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작년 겨울 많은 사람들을 게임 속 가상공간으로 빠지게 만든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게임 캐릭터에 몰두하여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음악이라, 관객들을 어떻게 흡수해 무대와 객석을 즐기게 할까?



게임 이름 같은 '격전의 유-스페이스'라는 행사명만 봐도 이들이 하는 일을 유추해 내기 어렵지 않다. 혹시 직장인 동호회라는 캐릭터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로 빠져나올까? 여러 가지 상상을 들게 하는 <관교직장인동호회연합>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대에 선 동호회 멤버들은 청순한 숙녀가 되기도 하고, 감쩍 발랄한 만화 속 여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연은 삭막한 느낌의 빌딩 숲을 럭셔리 클럽으로 느끼게 하였다. 이처럼 <관교직장인동호회연합>의 음악제는 가을밤 유스페이스 광장에 모인 직장인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테이지를 선사했다.

평소 관교 오피스가의 금요일 거리는 한산하다. 하지만 음악제가 열린 금요일 퇴근시간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부터 저녁 산책을 나온 판교주민, 직장동료의 공연을 응원하며 같이 즐기는 동료들까지 많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많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던 포괄음악제가 끝나고 행사의 총괄을 맡은 이준성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음악제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에 <관교직장인동호회연합>의 회원들 모두 바쁜 시간 짬을 내어 함께 음악제를 준비하였다고 답변했다. 퇴근 후 음악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공연 준비를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무대에 선 동호회 멤버들은
청순한 숙녀가 되기도 하고,
감쩍 발랄한 만화 속
여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포괄음악제 1회 격전의 유-스페이스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스 : 판교 유스페이스-

〈판교직장인동호회연합〉은 판교 지역 3개의 직장인 밴드(엔씨오브락, 벅슨밴드, 스마일게이트밴드)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직장 생활과 동호회 활동을 병행하는 것, 특히 3개의 밴드가 공연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성 담당자는 “동호회 멤버들 모두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다녀 다른 모임에 비해 훨씬 더 자주 모일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밴드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물론 음악제를 준비하며 멤버들 간 오해와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문제 상황을 차근차근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음악제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3개 단체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묘하게 움직이게 한다.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지만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삭막하기만 했던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은 사람들의 힘찬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이들은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어 판교라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동호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음악제를 개최한 〈판교직장인동호회연합〉의 다음 스테이지는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판교지역 IT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음악제이다. 이번 음악제를 계기로 직장인 생활문화가 확산되어 판교의 모든 회사가 함께하는 진정한 ‘포괄’음악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김채연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관심이 많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제 발로 직접 뛰며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靑年)으로서 제 안에 불안정함과 열정이 공존하지만 언제나 청(靑)년으로서 묻고 청(聽)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생활문화 취재단으로 활동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모든 생활문화 행사의 참가자, 관객들의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성남시에서 진행되었던 한 생활문화 공연에서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무용단의 한 참가자 할머니가 가장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부천시 행사에서 공연이 시작되기 전, 주차장 한 켠에 삼삼오오 모여 열심히 연습을 하던 아주머니들도 떠오릅니다. 결국, 생활문화라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으로부터의 일탈은 매일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삶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탈은 또 다른 사람의 일탈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행위가 계속 전달되고 공유되며 결국 하나의 정신적인 소산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삶을 진정으로 음미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생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그대, 걱정 말고 도전하라.

사람들이 오가는 부천역 광장에서 기타를 조율하는 소리가 들려 오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춰 선다. 어디서 젊은이들이 버스킹이라도 하는가 싶지만 무대에는 40대가 훌쩍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부천역 마루 광장에서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름으로 문화 공연이 열렸다. 부천 전역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진행되는 본 공연 부천역 마루 광장에서 벌써 3번째 행사이다.

전문 강사진에게 지도를 받아 무대를 준비한 동호회들은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가 참여하여 공연의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했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출연자들의 흥은 이미 시작되었다.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인 무대 옆에서는 기타 동호회 회원들의 작은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마루 광장에서 한가하게 장기를 두던 어르신들 모두 버스킹 하는 기타 동호회 회원들을 관심 있게 바라본다.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마루 광장의 나무 바닥에 하나둘씩 자리를 깔고 사람들이 공연을 즐기기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다섯 개의 생활문화 동호회가 연합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동호회들은 춤바 댄스, 하모니카, 통기타, 밴드, 밸리 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문화 공연을 구성하여 부천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풍부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춤바 댄스 공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리듬에 맞춰 박자를 댔다. 또한, 통기타 동호회가 귀에 익은 팝송들을 연주할 때는 작게 흥얼거리기도 하며 공연을 즐겼다. 이러한 문화 나눔 공연은 공연자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문화 공연을 기획한 <블랙로즈 밸리댄스> 단체의 정인규 담당자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여가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문화 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동호회를 통해 같은 문화를 즐기며 함께하는 것은 생활의 행복을 찾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런 취미 생활에 ‘문화 공연’이라는 목표가 있어, 긴장감과 활력이 생겨나고 회원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호회의 회원들은 바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툼툼이 모여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함께하며,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나눔 공연은
생활문화 활동으로
삶의 활기를 찾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함께하자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들에게 이 공연은 전문 음악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실력을 길러 무대에 섰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가 끝난 후, 관객들이 찾아와, 동호회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 문화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고 한다.

<걱정 말아요 그대~ 문화 나눔 공연>은 출연진과 관객 모두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평소에 문화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나이대의 관객들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실시하는 문화 공연을 보고 자신도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결국 이 문화 나눔 공연은 생활 문화 활동으로 삶의 동기를 찾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그들에게 함께하자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화 공연에 출연한 동호회 중 한 회원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은퇴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러한 생활 문화 활동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문화 공연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 우려 말고 취미를 즐기며 삶의 또 다른 행복을 찾으시길, 걱정 말아요 그대!





유미희

작은 것 사소한 것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걷고 찾아다니는 여행의 기쁨을 압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저장고에 오래 살아남은 기억들과 생활의 사소한 사건들을 글로 표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도시 생활의 긴장감과 교외의 한적함을 사랑하는 이중성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 및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현장을 찾아 리뷰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물론 내로라하는 스타가 등장하는 공연이거나 대중이 운집하는 현장은 아닙니다. 오가며 공연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추어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연은 관객을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다소 서툰 공연이라도 힘껏 손뼉 치고 함께 어께춤도 춥니다. 공연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길목에서 이런 공연들이 열리고 있다는 게 즐거울 뿐입니다.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상이 되는 문화 활동,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가을 향기 가득한 작은 공연 광장에서 즐겨요

— 생활문화는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와
함께 춤추게 하는
정겨운 축제이다.

가을이 화려하게 물든 토요일 오후, 야탑역 광장에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시민과 문화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0월 26일 열린 이 행사는, 경기 성남과 용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11개 생활문화 팀의 합동 공연이었다.

공연을 총괄하는 <뮤젤밴드>의 배종환 단장을 현장에서 만나 행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오늘 공연에 출연하는 팀들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만나 적극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원이나 광장으로 시민들을 찾아가서 생활문화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철역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먹고 공연을 보러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천사라는 의미의 <뮤젤밴드>는 성남 지역에서 재능 나눔 공연을 많이 해 온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1개 팀 중의 하나이며 행사를 총괄했다.



그동안 개별 그룹으로 탄탄하게 활동해오던 팀들이 함께 모여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떠한지 물었다. “흠어져 활동하는 동호회들이 연합 공연을 준비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유대감이 생겼으며, 동호회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단독 공연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며 보람도 훨씬 큼니다.”

북을 치는 여성 4인조 <천둥난타>팀을 공연 전에 만났다.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4인조의 군복풍 의상이 눈에 띄었다. 5~60대라는 나이보다 젊고 발랄해 보였다. 그 비결을 물으니 북을 치면 즐겁고 젊어지는 것 같단다. 기자에게도 난타를 권해줄 정도로 북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 생활문화 공연장에서 만나는 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표정이 참 밝다.

3시에 본 공연이 시작되며 길을 가던 행인들이 무대 주위로 몰려들었다. 난타 공연과 통기타 연주가 이어졌다. 한국무용을 보여준 <가인무용단>의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에 어르신 관객들이 푹 빠져들었다. 맨 앞줄에 앉은 할머니님은 팔을 흔들며 민요에 장단을 맞췄다. 흥이 많은 이분은 나중에는 무대 아래로 나가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었고, 무대 위 공연팀이 화답하면서 정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다른 관객들도 할머니의 이 모습에 웃음으로 응원했다.

—
생활문화 공연장에서
만나는 연주자들은
공통적으로
표정이 참 밝다.

공연장을 벗어나는 할머니께 다가갔다. 손을 잡아 드리며 춤을 참 잘 추신다고 했더니 “옛날에 하던 거니께 해본 거여.” 하며 크게 웃었다.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이지만 흥겨움을 표현하고 스스로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이웃처럼 어울리는 이런 풍경은 생활문화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며 정착해가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날 ‘시민과 문화여행’ 공연은 밴드, 국악, 민요,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공연 중반, 댄스 차례에는 무심히 길을 지나치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환호성을 이끌어내었다. 광장이나 거리공연에서 댄스는 열정적인 춤과 의상들로 공연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등장한다.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을 확인시켜 준 <블루스카이>팀의 수준급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청중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7080 가수 김세환 씨의 무뚝뚝한 사나이를 연주했는데 그리운 추억의 노래여서 더 공감했던 것 같다.

멋진 기타 연주 뒤에는 통통 튀는 순서로 분위기를 바꿨다. 고고 장구라고 하는 빠른 장구를 연주하는 <좋아좋아>팀의 공연도 정말 볼 만했다. 밝은 색색의 의상과 연주자들의 역동적인 몸놀림이 생의 활력을 내뿜는 듯했다. 어깨를 덩실거리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번쩍 올려 박수로 장단을 맞추는 청중들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터 찾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나는 길에 잠시 앉아 함께 호흡하고 즐긴 사람들이었다. 누구에게는 예상치 않은 황재였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이날 공연장에는 장년의 어른들과 청년, 어린아이도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공연 티켓을 사고 시간을 내어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과 문화여행>은 야탑역을 지나는 사람 누구든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다. 이처럼 생활문화는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와 함께 춤추게 하는 정겨운 축제다.



김윤지

수원에 정착한 이후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마을미디어 활동가로, 또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마을미디어연합 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와 시민기자 활동은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문화를 알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즐기는 성격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5년 넘게 쉼 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2019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으로 즐거움이 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과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현장에서 생활문화를 마음껏 즐기는 시민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고 서로 다른 이들과 화합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더욱 빛을 발하니까요. 매번 취재를 다닐 때마다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문화를 즐기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는 밥을 먹고, 목욕을 하는 일상과 같이 자연스럽게 매일 이루어집니다. 시작하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문화,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문화가 생활문화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지요!

가을 소풍을 위한 완벽한 준비, 그리고 편안한 즐거움

—
일상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악기 연주가 함께
화음을 맞추어 가며 그
기쁨이 두 배, 세 배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추위를 실지 않은 바람 한 점이 있습니다. 불게 물든 나뭇잎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울창한 숲도 있고요. 이만하면 가을 소풍을 즐기기에 제격 아닐까요? 아,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가을가을한 분위기를 풍성하게 해주는 ‘음악’이요. 가을 소풍과 음악이 만난다면? 그야말로 가을에 꼭~ 빠질 준비가 다 되었습시다!

11월 2일, 경기상상캠퍼스 공간 1986에서 2019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생활악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16팀 동호회에서 준비한 공연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수원에서 숲 속하면 떠오르는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멋진 선율로 이루어진 공연이 더해져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주말이었어요.



‘생활악기’는 일상에서 남녀노소 배울 수 있는 악기를 말합니다. 행사명은 <오카리나, 우쿨렐레 페스티벌>이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기타, 플루트, 틴휘슬 등 다양한 악기가 등장했어요. 그만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가 꽤 많다는 뜻이지요. 또한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취미생활을 통한 만족감 그 이상을 안겨줍니다. 함께 배우는 이들과 서로 의지도 되고 때로는 자기계발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도 있어요.

이번 공연을 기획한 수원우쿨렐레오케스트라 장인호 대표는 “생활악기 페스티벌은 올해로 4회째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장소가 경기상상캠퍼스이니만큼 컨셉을 ‘소풍’으로 잡았어요. 주말에 열린 축제라 동호회 구성원 외에도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거든요. 아이들도 마음껏 뛰놀면서 공연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소개해주었어요.

생활악기 페스티벌에 참여한 동호회는 16팀이지만,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동호회는 40여 팀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22팀이 신규로 들어와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평소에는 본인들이 소속된 동호회들끼리만 모여 활동하는 편이라 다른 동호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 함께 교류하는 자리가 있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나고 나중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요”라며 씩 웃어 보였어요. 비록 준비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일 년에 한번 모두 모이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네요.



페스티벌 첫 문을 연 ‘잘하고 있다 카혼퍼포먼스팀’은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카혼을 신나게 연주해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는데요. 담당 선생님은 “요즘 흔히 사춘기 시작을 ‘중2병’이라고 해요. 게다가 최근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악기를 연주하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그런지 아직은 괜찮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시멜로오카리나앙상블’은 부천에서 활동하는 3인으로 구성된 신생 동호회입니다.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선율을 가진 오카리나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어 결성했다고 해요. 동호회 회원들은 마치 친자매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이제는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연주하는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눈빛이 얼마나 따스했던지요.

화성에서 온 ‘틴휘슬코리아 화성연합’은 수원과 화성에서 틴휘슬을 가르치는 강사가 참여자들과 함께 동호회를 구성했다고 해요. 건물 뒤편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았는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초보로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 연습하면서 강사 자격증까지 딴 참여자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북유럽과 아일랜드 음악과 잘 어울리는 틴휘슬은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피리 소리와 비슷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경기상상캠퍼스의 거대한 숲속과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었죠. 서로가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며 화음을 맞춘 공연은 이색적인 음색이 돋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 밖에도 올림양상블, 현올림가야금, 캄뮤직양상블, 서초우쿠렐레오케스트라 등 여러 동호회들도 한데 모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동호회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응원이 담긴 박수와 환호를 마음껏 보내며 페스티벌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곡반정동에서 공연을 보러 온 박소영 씨는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악기를 즐기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악기를 친근하게 여기고 취미생활로 즐기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악기 하나 다룰 줄 모르는데 작은 용기가 생기네요.”라고 말했답니다.

일상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악기 연주가 함께 화음을 맞추어 가며 그 기쁨이 두 배, 세 배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직도 생활문화와 악기 연주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김예원

경기도 수원시에 오랜 기간 살아가고 있는 20대입니다. 학창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진들의 배경은 언제나 수원의 산, 수원 화성, 수원의 옛 모습들입니다. 어느 곳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어느 곳은 다른 모습이기도 한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음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기억하고, 기억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억하고자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풍경을 담고, 오늘을 담고, 오늘의 기억을 담는 사진, 영상, 글, 그림을 남기고 싶고 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소감 및 내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란?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을 하며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나간 현장은 언제나 소통이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향유하던 취미나 특기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만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지역에서 역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생활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순간들도 생활문화겠지만, 그 소소한 삶들이 모여 다른 범주의 생활문화를 지역마다, 사람마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지만 각자의 의미를 꾸준히 찾아가는 삶이 생활문화가 가득 녹아든 삶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아리랑과 요들이 만나다

문화가 매개가 되어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가닥의
생활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9년 11월 3일, 단풍이 노랗고 붉은 자태를 드러내는 따뜻한 날, 낮익은 소리가 성남 남한산성 공원을 가득 메웠다. 익숙한 소리들이었지만, 그 소리의 합은 조금은 특별했다. ‘기타애락’의 기타 소리가 ‘소리 자람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의 가야금 소리와 만나 새로운 선율을 만들었다. 그 선율을 따라 ‘119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이어 ‘분당요들클럽’의 요들소리에 ‘폴앙상블’의 오카리나 소리가 입혀져 다채로운 음악회를 선보였다. 축제의 이름처럼 아리랑과 요들이 만났고, 다양한 소리들의 조화는 많은 시민들을 남한산성 공원으로 이끌었다. 단풍만큼이나 선명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기타애락> 주최의 축제 “아리랑과 요들이 만나다”를 즐기고 있었다.

“아리랑과 요들이 만나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과 스위스 전통 음악인 요들의 콜라보를 통해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재미있는 생활 속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축제이다. <기타애락> 단체를 포함한 5개의 동호회가 연합하여 본 축제를 준비하였고, 축제 속 무대는 다음과 같은 세 번의 콜라보로 구성되었다.

‘소리자람’ 콜라보 일부 국악을 대중적으로 편곡하여 정제된 국악에 어린이들의 합창과 대중적인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젊고 활기찬 국악 협연

‘분당요들클럽’ 콜라보 요들과 어린이 합창단의 낭랑하고 맑은 목소리, 부드러운 펜플룻과 오카리나 중주가 조화를 이룬 밝으면서도 감성적인 요들 협연

‘국악과 요들’ 콜라보 국악과 요들, 어린이 합창단의 콜라보 공연에 펜플룻, 기타, 오카리나 등의 연주를 덧입힌 전체 합주

모든 무대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어린이 합창단의 맑고 고운 목소리에 시민들은 박수와 몸짓으로 화답하며 무대를 함께 채워나갔다. 국악과 요들이라는 장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친숙한 곡을 선정했다. 합창단과 시민의 목소리 사이사이에는 기타, 관현악, 요들, 오카리나 등의 소리가 채우고 있었다. 그 합이 즐겁고 정겨운 음악이 되어 시민들의 순간을 풍요롭게 했다. 어린아이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모두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기타애락의 기획 의도처럼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생활 속에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하고 있었다. 기타애락 단체의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생활문화, 기타애락의 이야기, '아리랑 요들과 만나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아리랑 요들이 만나다'를 기획한 <기타애락>은 어떤 단체인가요?

A. 기타애락은 2005년부터 시작한 클래식 기타 동호회입니다.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벌써 1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만큼 멤버들끼리 동료애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위한 활동이 위주가 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팝송을 핑거스타일, 줄을 뜯어 연주하는 스타일의 연주법으로 연주해보기도 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Q.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성남 문화재단의 동호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단체들이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안에서 위원회가 다양한 사업 공고나 행사를 소개, 공유해주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소식도 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사랑방 문화클럽을 통해 다양한 연합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새로운 장르의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한 가지의 장르에 치중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요들, 기타, 국악이 콜라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더 많은 장르를 결합하고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를 실행하고자 '아리랑 요들과 만나다'를 기획하였습니다.

Q. 기타애락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기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연습실을 사용했습니다. 연습실에 다니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네트워크는 곧 생활, 삶 자체가 되어갔습니다. 모두 활동적인 성향이다 보니 서로의 삶에서 접하는 분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 맺는 것은 어느새 삶의 일부

가 아닌 생활이 되었고 각자의 삶이 생활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나누는 이야기,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른 분야의 생활문화라고 생각합니다.

Q. 무대 연출부터 홍보까지 기획하고 실행하셨는데, 국악과 요들 콜라보에 맞게 기획하신 무대 연출 방안이 있으셨나요?

A: 기획 과정에서는 많은 인원의 공연자와 음향 장비를 고려하다 보니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획을 하는 것이 최선의 무대 연출이었습니다. 비용과 장비 등을 고려하며 삭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대 구성은 최대한 관객들이 관람하기에 재미있고, 새로운, 즐거운 공연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하는 무대이기에 더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하였습니다. 공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 밝은 목소리의 어린이 합창단이 주 노래를 말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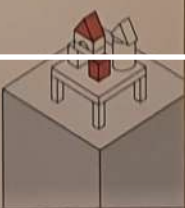
기타애락의 기획 이야기를 듣고, '아리랑 요들과 만나다'의 관객이 되어보니 생활문화는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리랑도 요들도 어느 한때 우리의 삶을 채우던 삶이자 생활이었고 문화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게 했다. 문화가 매개가 되어 생활 속에서 만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가닥의 생활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관계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서로의 삶의 일부분들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생활문화같다는 기타애락의 말에 공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에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또 이어져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마치 이 날 아리랑이 요들, 기타, 새로운 목소리, 오카리나와 만나며 새롭고 흥겨운 시간이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매일 익숙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또는 그 무언가와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수활동가 국외 생활문화 현장 탐방



03

邁出第一步
創作者的
學校



本計畫由「公民力量」與「社區發展基金會」共同發起與執行
歡迎各界踴躍參加！

小民的社造資訊佈告欄
台北村落之聲
#小民放電



民倫



大展身手的小民
台北老屋改造大獎
#小民放電



民倫



- **탐방국가** 대만(타이페이)
- **탐방기간** 2019. 12. 3.(화) ~ 2019. 12. 7.(토) 4박 5일
- **탐방목적** 국외의 활성화된 생활문화 현장을 소개하여 생활문화 활동의 긍정적 인식 제고
국외의 다양한 생활문화 현장 및 단체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생활문화 취재단의
문화적 역량 강화
- **탐방인원** 4명

소속	이름	업무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팀	조은정	국외 생활문화 현장 탐방 총괄
	노윤지	생활문화 취재단 우수활동가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2019 생활문화 취재단 우수활동가 (심의를 통한 선정)	유미희	국외 생활문화 유관 기관 및 재생 공간 사례조사 국외 생활문화 현장 취재 및 리뷰 작성
	김채연	국외 생활문화 유관 기관 및 재생 공간 사례조사 국외 생활문화 현장 취재 및 리뷰 작성

보장암 국제 예술인마을



• 탐방일정

날짜	장소	방문기관	방문지 세부내용
12/3일 (화)	한국 인천	인천 국제 공항	• 인천국제공항 출발
	대만 타이페이	타오위엔 공항	• 타오위엔 공항 도착
		보장암 국제예술인 마을	• 예술인 마을 조성 및 운영 성공 사례 • 예술인 모집 및 활성화 방안 조사
12/4일 (수)	대만 타이페이	URS거리	•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 • 방문자 센터 운영 방안 조사
		타이베이 마을만들기센터	•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활성화 성공 사례
		문화탐방	• 보피라오 역사거리 • 용산사
12/5일 (목)	대만 타이페이	난지창 중칭리 마을	• 민간의 자력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로 만든 주민 활동 센터 • 생활문화 관련 활동 다수 진행
		쓰쓰난촌	• 도시 재생 성공 모델 • 옛 군대 주둔지, 옛 설당 공장 등을 거쳐 옛 생활상을 전시한 지역 공원으로 탈바꿈
		문화탐방	• 대만101타워
12/6일 (금)	대만 타이페이	난강 짜우루 생태마을	•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운영 성공 사례 •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식당 운영, 노인 무료 식사 제공
		화산1914 창의 문화원구	• 도시 재생 공간 성공 사례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 • 갤러리, 샵, 레스토랑, 카페 운영
		문화탐방	• 지우펀 • 쇠퇴한 탄광 도시를 재조성 • 지역 자연 환경을 이용, 재개발하여 관광도시로 재탄생
12/7일 (토)	대만 타이페이	송산문창 원구	• 도시 재생 공간 성공 사례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 • 카페, 플리마켓 운영
		타오위엔 공항	• 타오위엔 공항 출발
	한국 인천	인천 국제 공항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대만 생활문화 현장 탐방 리뷰글은 ggc 및 2020년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 자료집에 수록 예정

난지창 중칭리 마을 푸드뱅크



타이베이 마을 만들기 센터



난강 짜이루 생태마을





2019 생활문화 취재단 활동자료집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현
발행일 2019.12.20

총괄 서정문 (문화예술본부장)
책임 임은옥 (상상캠퍼스팀장)
편집기획 노윤지
제작지원 조은정, 오승호

글 · 사진 이소연, 민병은, 임재춘, 심한기, 안태호, 이은혜, 이해구, 전형민, 김성원,
신지은, 최서아, 이석현, 박윤희, 최창임, 김채연, 유미희, 김윤지, 김예원

디자인 · 인쇄 : 디자인 달

© 경기문화재단

본 권에 실린 글과 사진, 작품 이미지는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집에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